중소기업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한 뜻'

전북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협약식 개최… 협약식에 도내 기업지원기관 20여 개 기관장 참여

도는 1일 기업애로사항 해결과 기업성장의 종합적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종합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20개 기업지원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협약식을 개최했다.

전북도는 1일 기업애로사항 해결과 기업성장의 종합적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종합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20개 기업지원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20개 기관은 △전라북도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EC0융합섬유연구원 △기술보증기금 호남지역본부 △자동차융합기술원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 △전북대학교 창업지원단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지역대학연합기술지주회사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전북테크노파크 △전주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 △캠틱종합기술원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기업애로사항 해결 및 제도개선 노력 △기업지원사업 통합안내 및 관리시스템 일원화를 위한 협력, △기업정보(기업, 환경, 매출, 사업성과 등)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정보공유 △각 기관에서 추진하는 기업지원사업 공유와 공동추진 등이다.

민선 8기 도정은 기업유치를 통한 전북 도민경제 부흥을 최우선과제로 정하고, 전라북도에서 기업인들이 어려움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관련, 전북도와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은 기업애로해소와 기업성장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기업의 경영 애로해소를 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상시 상담 체계가 구축되고, 전라북도 및 중앙부처 지원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본 시스템을 통해 기업지원사업의 대대적 홍보가 가능해져 현장으로의 정책 전달이 보다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천세창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이번 시스템 구축은 기업이 원하는 지원정책을 한곳에서 확인하고, 기업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상시 상담이 이루어져 종합적이고 신속한 지원 및 처리에 의의를 두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 관련 기관들의 긴밀한 협조로 시스템이 차질없이 구축되어 기업하기 좋은 전라북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한 기업의 대표는 "전북도는 이러한 시스템이 없는 것이 늘 아쉬웠던 참나, 구축 소식을 듣게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기업 경영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전했다. /김재훈 기자

NH농협은행 전북본부는 1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 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해 성금 2억4,000만원을 전북도에 전달했다.

호우 피해 복구 성금 2억4000만원 기탁

NH농협은행 전북본부, 피해지역 복구 위해 도에 전달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경민)는 1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 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해 성금 2억 4천만원을 전북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북도청에서 열린 이날 전달식에는 김관영 도지사, 장경민 농협은행 전북본부장, 이선홍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회장 등이 참석했다. 농협은행은 최근 잇따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받은 지역의 안전하고 빠른 복구를 위해 성금을 기탁했으며 전달된 성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도내 농가와 이재민 구호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농협은 연일 수해 피해 농가 지원을 위한 복구 활동을 전사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금융지원 대책으로 호우 피해 농업인에 최대 2.6%(농업인 이외 고객 2.0%)의 금리우대를 지원하며 신규/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최장 12개월까지 이자납입유예 혜택을 제공한다.

장경민 본부장은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북도민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호우피해 지역의 일상회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새만금자동차 수출복합센터 11월 착공 추진 '속도낸다'

군산시, 민간사업자 이견 해소 · 사업 지속성 확보 노력 협의 완료

군산시와 군산자동차무역센터(주)가 새만금자동차 수출복합센터를 오는 11월 착공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시는 '새만금자동차 수출복합센터' 조성 사업에 대해 지난 7월 28일 건축허가를 위한 심의를 신청하는 등 사업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 시와 군산자동차무역센터(주)는 민간사업자의 권한과 책임, 사업추진방식 등에 이견을 보이며 사업이 지연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6월 초, 시에서 금융사, 건설사, 신탁사, 설계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책임준공, 신탁계약 체결, 토지매매계약 등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그에 따라 세부적으로 이행시기와 방법 등의 협의를 완료해 그간의 문제점을 해소하게 됐다.

또한, 군산자동차무역센터(주)는 이달 중 토지매매계약을 시작으로 10월까지 재원조달 등의 사전적인 절차를 마치고 금년 11월 중 착공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도 시설 착공 후,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새만금자동차 수출복합센터' 시설 준공 후 잠정적 고객 확보에 노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완성차 제조 대기업들이 인증중고차 시장 진출 및 확대를 모색하고 있어서, 중고차의 수출·매매의 온라인 판매 기조에 맞춰 대기업과 상생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수출·매매 통합 플랫폼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새만금자동차 수출복합센터 조성사업은 새만금산업단지 5공구 부지 197,824㎡에 수출비즈니스센터와 매매업체 입주단지, 정비·튜닝·부품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1년 8월 민간사업자 공개모집을 통해 현재의 군산자동차무역센터(주)를 민간사업자로 선정하고 사업에 착수했지만 새만금산업단지 통합개발계획 등의 행정절차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어 사업이 지연되어 왔다.

군산자동차무역센터(주)와 시 관계자는 "사업이 지연된 만큼 군산시의 행정력과 민간의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여 11월에 착공, 2025년 상반기에 개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잼버리 성공 위해 금융서비스 '앞장'

농협은행 전북본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이동점포' 운영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경민)는 1일부터 개최되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찾는 해외 청소년과 관광객을 위해 'NH이동점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농협은행은 이달 12일까지 전북 부안군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장 내에 이동점포를 설치·운영하며 참여 학생과 잼버리 관광객의 편익 제고를 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NH농협은행 이동점포인 'NH Wings'는 금융단말기와 자동화기기(ATM)가 탑재된 차량형 이동점포로 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장소 제약없이 찾아가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글로벌 ATM 예금인출 및 환전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기간 동안 농협은행 전북본부, 부안군지부 직원 및 N돌핀 대학생 봉사단은 다양한 금융업무를 현장에서 지원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금융기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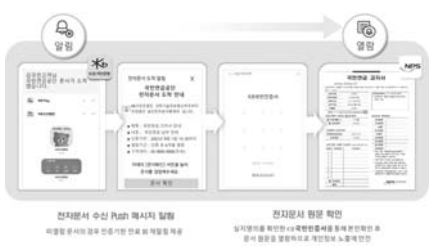
NH농협은행 전북본부는 1일부터 개최되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찾는 해외 청소년과 관광객을 위해 'NH이동점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장경민 본부장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찾는 참여 학생과 관광객들의 금융 편익 제고에 앞장서겠다."며 "앞으로도 농협은행은 지역밀착형은행으로서 잼버리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안내문, 이제 KB국민은행 앱에서도 받아본다

정부 · 공공기관 최초, KB 뱅킹 금융 앱 통해 모바일 전자문서 서비스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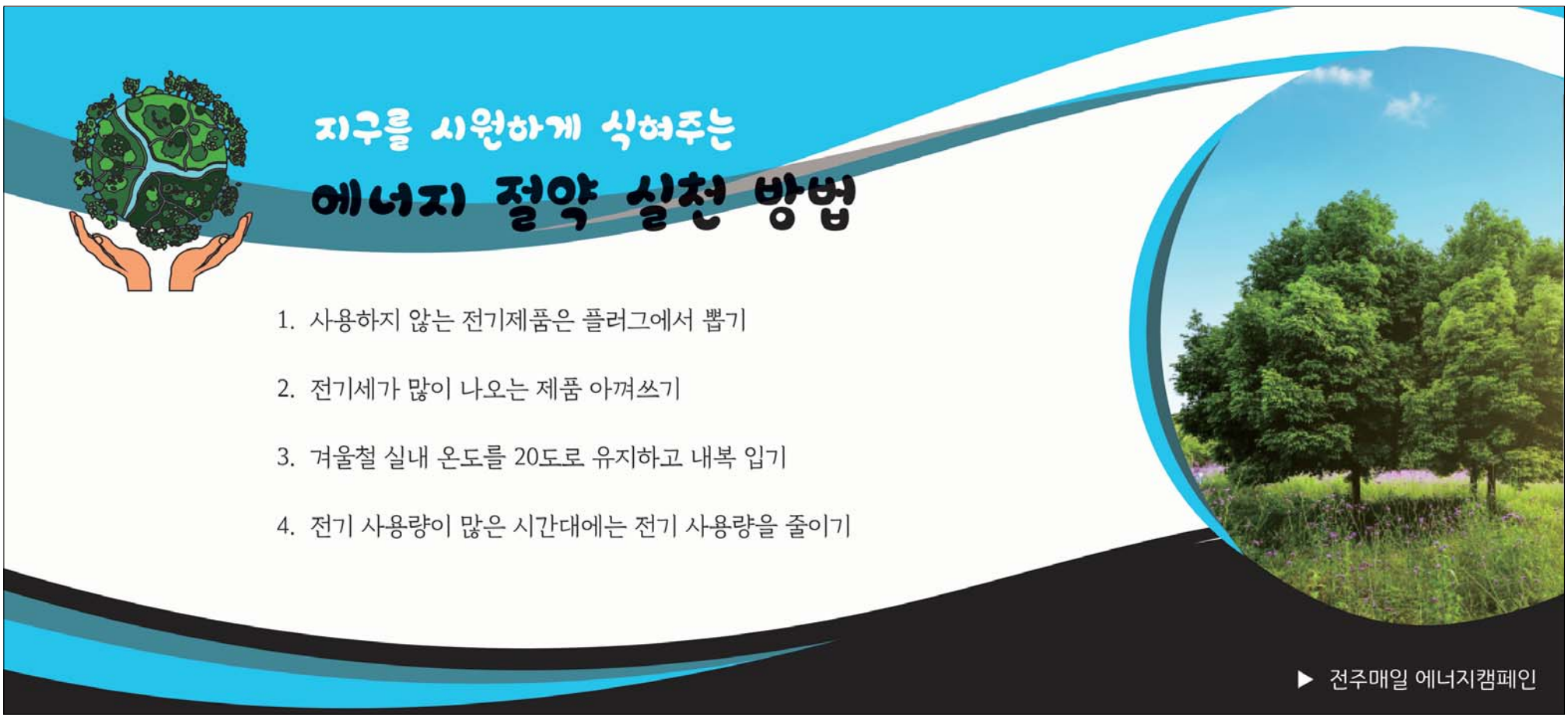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MMS, 카카오톡, 네이버앱에 이어 국민연금 안내문을 'KB국민은행 스타뱅킹' 모바일 앱(이하 KB 뱅킹앱)에서도 받아볼 수 있게 됐다고 1일 밝혔다.



KB국민은행 전자문서 서비스 흐름도

금융 앱에서 정부·공공기관 안내문을 발송하는 것은 공단이 최초로 KB 뱅킹앱 이용자가 2천만 명이 넘는 만큼 고객 편의성과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KB 뱅킹앱 이용자는 국민연금 전자문서 수신 Push 알림이 뜨면 수신 동의 및 본인 인증 후 안내문을 열람할 수 있고, 열람하지 않으면 MMS·카카오톡·네이버앱 또는 우편물로 안내문이 발송된다.

김청태 디지털혁신본부장은 "종이 우편물을 전자문서로 발송하는 서비스는 고객 만족, 비용 절감, 탄소 중립 세 마리 토끼를 잡는 매우 유용한 제도이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및 국민 생활에 더 편리한 연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jmaeil.com에서